



18일 하워드 김(앞줄 가운데) ABC통합교육구 위원 후보 후원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.

“선거전 막판 홍보 총력”

하워드 김 후보 후원 행사

세리토스와 아테시아, 노워크, 하와이언 가든, 벨플라워 일대 지역사회 주요인사 30여명이 18일 가마골 식당에서 열린 하워드 김 ABC통합교육구 위원 후보 후원회에 참석,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다짐했다.

조재길 세리토스 시의원, 케네스 차 세리토스시 재산보존 커미셔너, 오 구 전 OC한인회장과 중부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은 이날 모임에서 선거전 막판 각계의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세몰이로 김 후보

의 11·6 지방선거 승리를 굳히자는 뜻을 모았다.

김 후보는 “한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종의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실현할 계획”이라며 “전체 미국사회에서 경쟁력있는 ‘멀티 컬처럴 리더십’, 다문화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구가 되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김 후보는 최근 LA카운티내 350개 산별 노조들을 대표하는 통합노조연맹(AFL-CIO)의 공식 지지를 얻은데 이어, 앨런 로웬탈

(27지구) 주상원의원과 토니 멘도사(56지구) 주 하원의원, 토니 리마 아테시아 시의원, 레오나드 체이데즈 하와이언 가든 시의원 등으로부터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.